

성도의 벗

12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마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이르되……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裴 一 文 部長
E. S. 씨 손스 補佐
李 虎 男 補佐

(누가 1:30~35, 누가 2:3~14)

성도의 벗

목차

성화	
성구	1
목차	2
편두언	3
예언자의 말씀	5
암케이트	11
말해여 안녕(한인삼)	13
토드 쏘	16
물론과 나(김방실)	19
특별 광고	21
광주지역 첫 행사	22
일서서는 성복	26
계보위원회 소식	28
66년도 물론 가족	30
이해를 보내면서(이순애)	31
지부소식	34
성도의 벗이 선정한 1966년도 10대뉴스	38
역원 소개	39
침례자 명단	40
편집 후기	40

卷 頭 言

親愛하는 韓國宣敎部の 兄弟 姊妹들이여 !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토아 역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도록 훈계하였습니다.

1966년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환정심과 크리스 마스를 축하하는 준비의 의의를 설명해 주는 의미 심장한 말씀임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리스마스의 선물이나 카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기억케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찬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위대한 선물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선교부장단은 트리스마스의 참 정심을 줄스로 해서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선교부장 스펜서 제이. 램퍼

재일보좌 이. 에스. 씨슨

제이보좌 이. 호 남

서 기 에프. 엘. 리브

Merry
Christmas



宣教部長團

豫言者의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좃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토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요한 1장 38-39절)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시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 보라."

이러한 세마디 의미 심장한 말씀들은 구세주께서 유희의 산에서 돌아온 뒤 곧 이야기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은 구세주께서 선교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 분이 인간의 구세주라는 것을 처음으로 기록케 한 말씀입니다.

"주님이시여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질문은 틀림없이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루와 요한에 의해 질문 되었습니다. 그 두번째의 질문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뜻을 파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디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토마의 압박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의 여러가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세주의 대답은 가장 의미 심장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면 나는 "와 보라." 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따라 온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 길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내가 이 교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목적은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의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현 세대의 인류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대답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재화를 찾는다. 또 어떤 사람은 명성과 권력을 찾는다 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을 찾는다. 우리는 사회적인 낙원을 찾는다 고 우리는 인간의 여러 가지 악으로부터 구제 받는 사회를,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사회를 원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전진적인 세계의 세대에서 살고 있는 마음이 고결한 자도자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방식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훌륭한 생활과 사회적인 낙원은 수세기 동안에 겹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기엔 안이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 고락을 겪어 왔으며 때로는 거의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에 의해 제의된 아이디어들과 제안들은 응용된 일이 거의 없었으며 때로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보급됨으로서 보다 더 향상되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실험단계에서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난 세기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19세기 상반

기는 다소 사회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주의 깊은 사람들은 현재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개혁을 모색해 왔습니다. 금세기 초에 불란서에서는 "찰스 포리의 의뢰상적인 이론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8,000년 동안에 걸친 인류와 지구에 대한 잠태의 역사를 설명하러 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저서들은 거의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웬"은 인디애나 주의 뉴 하모니시에 삼십적인 토대를 닦은 사람입니다. 열리하고 앓들한 노력으로 토아 높은 재산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그리고 그의 후원자였던 "켄트" 공작의 격려도 있긴 하였지만 인류를 함삼시키려는 그의 계획은 1827년에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국에 돌아와 그곳에서 비슷한 일을 여러번 시도해 보았으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일교도파의 목사인 죠지 리프리는 이 생활은 평범하게 하되 생각은 고상하게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다니엘 호손"과 뒤에 미국 육군 차관이던 "찰스 다나" 및 "존 드와이트" 같은 유능한 사람들을 친구로 가졌습니다. "리프리"의 추진력은 경제적인 것 보다도 정말 종교적인 것에 있었고 새로운 사회의 욕망보다도 야박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세상을 합의적으로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위대한 시험"이라고 불리운 유명한 "브루크 농장"의 설립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846년에는 끝났습니다.

"필립 레셀"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 나라의 어떤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또 다른 사람은 확신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이다. 그러나 "부루크" 농장을 포함한 모든 성장과 발전은 병들고 긴장한 미국의 사회적인 기초를 지적해 주고 있다.

이 회복된 교회는 부패해가는 이 국가에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반응에서 조금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도 비평가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종교적인 흥분상태는 죠셉 스미스를 올바른 교회와 존경심에 대한 정당한 형상과 삶의 바른 길을 모색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알리는 욕망은 이 젊은이로 하여금 1820년 봄 지혜투우신 주님을 찾게 했으며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가장 훌륭한 결과로 1830년 4월 6일 화요일 "피터 휘트머" 1세의 집에서 이 교회의 조직이 비롯되게 했던 것이다.

사회적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순수한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다른 가치있는 조직이 뚜렷이 가진 독점 즉, 사회악의 개선과 인류의 향상 같은 목적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면에서 마음 속에 잘 간직되는 것이다.

첫째 "죠펀 스미스"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과 여러가지 일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틀림없이 그는 "포리어"의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일이 없었으며 "오우웬"의 실험이나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종교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계획들을 들은 일이 없었다.

둘째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맨처음의 여섯 회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으며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기반이 없었다.

셋째 죠펀 스미스는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명령에 의거해서 즉 하나님
의 계시에 따라 교회를 조직했다.

정부는 집단의 권위를 대표하며 자주 그 집단의 각 개인
위에 그 집단의 의사를 강박하기 위해 의무적이고 감압적인
수단을 행사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세계는 현재 정부의 가장 좋은 형태에
관해서 그의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형태의 정부를 도
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독재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부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백
성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나 혹은 이 두가지를 다 합친 정부
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인가?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나의 친구들과 사려 깊고 정직한 사
람들은 참다운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틀 내리고 예수 그
리스도의 교회가 그 정의에 따르는 일은 얼마나 존경할만한
일인가를 알고 있다. 교회 기구에 대한 어떤 사려 깊은 분
석은 그것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과 모든 미덕과 민주주의
를 지키는데 필요한 방위력을 이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첫째, 그것은 성직자의 정략이 섞인 비행과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과 다수결로 정하는 일 없이도 성직의 권위를 가지
고 있다.

둘째, 그것은 가입하는데 있어서 범세계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제도 즉, 참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힘과 진짜 알맹이와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백만장자에게 다같이 적용

되는 공정과 똑같은 특권을 주는 사법적인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테이크나 워드나 지부의 여러 지역의 교회 집단에 있어서는 효율과 전진이 각 지방단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참여시키므로서 격려되고 있으며 각 지부가 중앙 정부와 밀접한 유대를 가지는 일은 모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지혜없이 채택됨으로서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가지 형태의 갈차가 증명했다. 사실을 말한다면 효율과 발전을 추진하는 견지에서 볼 때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찾고 있는 정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세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의 종교적인 정부와 정치적인 정부를 제후시키지 않고 있다. 나는 단순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세워진 조직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잠재는 어떤가? "따라와서 보라." 풍부한 생활 아름답고 웃음에 넘치는 생활보다 많은 형제애와 보다 안전한 평화보다 항상 전 사회 관계는 세계가 맞고 있는 몇가지 수확들이다. 분명히 본교회는 그 길을 보여야 한다. . . .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불빛을 나르는 사명을 부여하신다. . . .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즉, 인간의 형제애와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하나님의 왕국에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이루어질 사회적인 질서수 (17페이지까지 계속)

양케트

(설문)

1. 67년에 하고 싶은 일 하나?
2. 12월이면 생각나는 일?
3. 66년도에 가장 보람있었던 일?
4. 이 지면을 빌어 "성도의 벗"에 하고 싶은 말?
5. 성탄절을 맞아 선물을 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선교부장 배 일문 박사

1.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것.
2. 12월이면 집에 돌아가 어머니랑 가족들과 함께 하고파.
3. 성도와 선교사들이 크게 생활을 향상시킨 것.
4. 더 많은 미적 감각을, 모양이 좀더 매력적이었으면, 정 규적으로 나왔으면.
5. 예, 주와 나의 친지에게 더 큰 헌신과 봉사들.

성북지역 민 경옥 형제

1. 훌륭한 집회장소를 마련하여 많은 성도들과 예배하고 싶다.
2. 구주의 탄생.
3. 하나님의 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
4. 모든 선교사에게 감사들, 특히 넬슨장토에게 감사들 전해 주시오.
5. 성북지역 회원중 궁핍한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이라도 한때.

선교사 킵 나서 장로

1. 물론경을 좀더 알차게 읽게 되었다.
2. 아쉬움.
3.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일.
4. 모든 성도들에게 고루 기획와 보람된 벗이 되기틀.
5. 그런말 마슈. 꼭 한분이 계시쇼.
카드와 정성이 깃들인 조그마한 선물이면 어떨까요?

침윤지부 정윤 형제

1. 침윤동 집을 위해 좀더 일해보고 싶습니다.
2. 먼 훗날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온다.
3. 언젠가 그 언젠가 소설로 쓰렵니다.
4. 성도의 벗이며, 기쁨의 벗이며, 새 소식란이기를
5. 다 아시면서 물으십니까?
제 선물에 보람을 느낄 사람에게 "목석같은 우람아"를 주
렵니다.

선교사 리브 장로

1. 사무용 기금을 과용하지 않는 것.
2. 빨간 코와 추워보이는 귀.
3. 대구 지부의 지역대표로 임명되었던 일.
4. 호환판 표지로 많은 사람의 가슴을
5. 팔머 자매에게 매를 한대.

말해여 안녕!

한 인 상



그냥 부푼 꿈이 아닌, 결의와 소망과 기도로 마지했던 나의 병오 녀미여! 말해여 안녕, 안녕! 크리스마스 케톨과 흰눈과 또 서성대는 마음들이 계절의 내음을 질계할 때 벌써 나는 한해가 또 후따 지난 것을 알고 미처 설거지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똑바로 안녕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추웠오, 어서 이리로 다아오시오!" 최후의 전 잠 걸전지 너머서 이렇게 늘 말씀 하시던 이,, 그는 나의 병오녀 삼백 예수 다섯날을 하루 같이 지켜주시며 인정이 추워서, 의가 추워서, 압이 추워서,, 그것을 노여움으로 동쳐들고 떨던 나를 안위해 주셨다.

음식과 평안을 나의 아빠 엄마 그리고 성도된 형제 자매들에게 고 투 나눠주십사고 기도할 때면 뜨겁

게 가슴으로 응결져 오던 것. 벌받는 나와 나의형제들. 그냥
채하기만 할 수 없던 손,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안으로 울고
벗들은 높이 담을 쌓았지. 일그러진 대중의 눈총이 무서웠
던게 아니라 벌건피가 꺼떨게 통쳐져 터져 나간다해도 가슴
을 턱 가르고 진실을 증거할 수만 있었다던 정말 그렇게 하겠
다고, — 그렇게 안으로만 영웅이 되어진 말해여!

머리는 진리를 녹이고 핏줄은 그걸 정직하게 직감했어도
눈은 말발굽의 수를 헤아리며 "불완전한 육신입네다"를 그럴
듯하게 범명하면서 내일로 내일로 참회를 밀어 왔대도 이제
이 시간은 안녕을 말해야 하는 시간.

지방대회가 네번, 때로는 부정하고 때로는 폭발직전의
자기를 긍정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밝으리라는 아니 그러
지 않을 수 없다는 스스로도 풀지 못하는 간증의 공식을 안고
독이 터지도록 부트다가 부트다가 쓰러지면 바로 그 언덕너
머서 나는 늘 무엇인가를 새로 발견하곤 했다.

그것은 평화였고 그것은 안식이었고, 그것은 풍요로움이
있고, 그것은 소음을 뒤로할 수 있는 집착이었고 젊은준마의
치달림 같은 것이었다.

병오년이여 말해여! 안녕, 안녕! 내가 다시 내 앞에 이
트기 전에 내가 이미 이 시련의 땅을 떠난다 해도 너는 또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희생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만날테고, 그때 내가 재어볼 수 있는 나의 성장
의 키는 두치 줌일까? 세치 줌일까?

가뭇이 왔을 때는 그 가뭇을 탓하고 큰 물이 몰려와 아
비규환의 참상을 빚게 했을 때, 오 주여! 를 실감있게 밝혀

왔지만 정작 한덩이 밥술이 더 절실한 나의 조국과 뒷줄앞에서 빈손으로 마주선채 나는 "하늘의 뜻입니다."를 똑바로 연결해 주지 못했다.

두개의 세계와 두개의 감정이 일치할 수 없을 때 그두개를 교통하는 다리가 있어야 했지만, 병오년이 이듬한 준마들은 헛딛이 들판을 치달리기만 했는가, 아니 하늘은 너무 멀어 성한 네 네굽을 갖고도 미치지 못하였는가?

어차피 하늘이 구한 것은 제들이었다. 뿔쳐오르는 걸의 위 젊음은 더 깊은 곳에 묻어 두자. 우리가 정말 씨를뿌렸다고 하면 어디선가 그 씨는 지금쯤 싹이 터서 자라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눈이 뜨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들의 시각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불토는 들을 주지만 이를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성급한 젊음이 편견에 부각된 이미지를 절대화한 후 말처럼 준마처럼 달리기만 하다가 언뜻 피토가 돌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벌써 말하는 갈기를 날리며 저만치앞을 달는다.

치달림만으로 겨우 피토를 알게된 오늘, 그러나 말해여! 안녕! 네가 가는길, 힘과 의욕이 넘치거든 형제들 서로 미워함과 게으름과 입술토만의 경배와 그리고 마음의 가난함을 모두 실어가거라. 우리는 여기 또 이렇게 남아 한치면 한치 반치면 반치들 겨웁게 겨웁게 성장하리라. 그러면서 주어진 세로운 임무를 바토 안고 저만치서 벌써 이곳으로 몰려오는 술한 양의 새끼처럼, 양해엔 순한 양이 되리라. 내리막길에

돌린 모든 귀중한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의 역전을 시도할 하나
나의 기적을 우리는 이미 매어달린 양의 역사에서 보아왔다.
그것이 과연 나와 네가 할 일이라면 이 의로운 외로움과 서러
움을 삼키고 한 마리 차분한 양이 되채 부담없는 마음으로,
말해여 안녕을 보내자.

어차피 시간은 번개 같은 것. 시간은 번개처럼 날아 사라
라지니 왔다하는 그 순간 벌써 지나가는 것. 마치 하루와 같
은 이 생을 살면서 삼백 예순 다섯날의 말해틀 보내는 이 대
전함이며 말해여 안녕!

* * * *

로드—쇼 (Road Show)

지난 11월 17일 청운동 선교본부 강당을 꽉 메운 관중들
은 벌어지는 열띤 연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이름하여 "로드 쇼 경연대회"

이름이 주는 이국적인 냄새와는 달리 준비된 각 지부의 쇼
는 매우 한국적이다.

청운 지부의 "트리스마스 캐롤"(디킨스 작)에 이어 작년
도의 우승팀인 삼척지부는 신작 "홍부 놀부전"(고원용 각본,
연출)으로 청중들을 웃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고전 "홍부 놀부전"을 대폭 각색하여 박 속에서
형제 자매들이 뛰어나오는 등 열연을 보였는데 놀부(김춘봉

형제)와 놀부 아내(정단 자매)가 흥부 내외(주덕영 형제, 장지현 자매)의 인도토 말일성도가 된다는 줄거리였다.

흥겨운 고전 민속 춤으로 마을 내린뒤 이어 동부지부의 무언극이 있었다.

네번째인 신촌지역은 삼척지부와 똑같은 "흥부 놀부전"이나 형식이 다르고 완작에 충실한 연극이었다.

마지막 서부지부의 모두 중학생들로만 구성되어 "고구마"를 공연해서 학제를 모았다.

막간에는 선교사들의 특별 노래 및 동부 지부 황능자 자매님의 고전 무용등이 있어 인기를 끌었다.

드디어 열린 공연은 끝나고 과거에 선교사로 왔던, 하킨스, 버틀러 형제와 송래섭 형제와 박우천 자매등의 심사를 거쳐 행운의 우수상에는 작년에 이어 삼척지부가 뽑혔다. 2등에는 신촌지역 나머지 지부는 모두 3등이 되었다.

삼척지부는 이 공연을 위해 짧은 시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삼향회 역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연습하여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 세번째를 마지하는 토드 쇼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뜻깊은 기획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 * * * *

(10 페이지의 예언자의 말씀 계속)

립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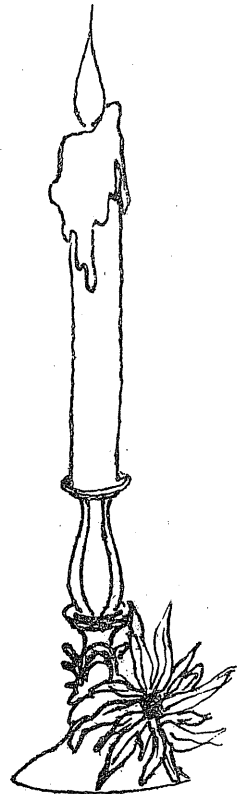


聖誕과

新年을 祝賀합니다.

韓國 地方部

地方部長團



물문과 나

김 방 실



김 방 실
제가 칙례를 받은지 이미 만 3
년 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던 청
학대 고갯길을 넘어서 삼척지부에
서 칙례를 받고 미끄럼을 타며 다
시 청운지부로 넘어오던 때를 기
억케 해 주는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만 3년이면 병아리는
자라서 수 많은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배출시키고 많은 경
험도 했을 기간이지만 저는 아직도 병아리 껍질의 껍질을 벗
지 못했는가 합니다. 신앙으로 보나 언어와 행동으로 보나,
함상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끼지만 저의 주변에는 함상
훌륭한 지도자나 후배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큰 발
견을 하게 될 날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생활의 테두리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
에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늘 나라의 행복의 일부분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므로 저도 이 다음에 이
땅에 천국의 일부분을 설계할 수 있을까고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한낱 교회 회원에 그치지 않고 진실한 말일성도가 될
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용이하게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인기애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에게 살

며시 찾아오는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밀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더욱 자신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모든 것 잡닥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 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세속적인 인기의 노예가 되기 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이며 존경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운 지부장님의 별명은 우량아입니다. 저는 이 별명이 혼자만 차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물론중에 훌륭한 성품의 요소들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교회안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우량돌돈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한국 선교부가 어느나라의 선교부보다도 우량 선교부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신권을 소유한 형제님들이 그들의 신권을 가치 있게 행사하여 우량돌돈이 되고자 하는 자매님들과 회원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줄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지도자로서 존경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신앙이라는 주춧돌위에서 물론으로서의 생활철학을 실천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영적인 능력으로서 우리 교회에 좀더 훌륭한 자매 형제들이 포섭되어 문자 그대로의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아름답고도 영적인 분위기속에서 저는 신앙을 느껴보고 싶고 키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서 실망을 느낄때에 저의 마음속에 용서할 줄 아는 아량을 갖게하고 또 그분들이 쌓아놓은 신앙의 주춧돌이 더

속 른른하게 되어 계속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희순으로서 제
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거룩한 벗이 될 수 있는 기도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이며 기도는 어렵어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말이겠지요.

올해는 보다 두꺼운 하얀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온누리가
받게 되기를 바라며 서투른글에 이해와 응시를 빌어 봅니다.

* * * *

特別廣告

금번 심도의 벗은 지방부장단 재편에 발 맞추어 임순의
계엄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발행인 본토 일하시던 함인상 형제는 편집 책임
을 맡기도 했으며 신임 지방부장 차종환 형제께서 매일은 전
도부장의 일을 대행하는 발행인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밖
에 편집인으로서의 송대집, 지영담, 구문식 제 형제께서 수
모해 주시며 각 지부의 특파원도 분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1967년도에 보다 나은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힘을
을 구하오니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술에 재질을 가지신 분으로 "심도의 벗" 장광의 벗을 출판
토 제공해 주신 분은 전화(73) 3995의 함인상 형제에게 연락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유익한 충고를

光州地域 첫 행사

동양인의 주식이 되는 쌀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곡창, 호남에 쌀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광주를 찾아 첫발을 디딘지 이제 겨우 3개월. 그러나 영의 주식이 될 참된 복음 가지고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낯선사람을 대하여 삶의 기쁜 소식을 전해온 그 땀흘림의 보람이 있어, 지난 12월 3일과 4일에는 광주지역의 첫 행사요, 경사인 영적인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하신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뜻을 가진 열분이 하나님앞에 거룩한 성약을하고, 하늘왕국에 들어가는 문을 두드렸다.

첫 침례식

12월 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광주의 이번 대사를 위해 내려가신 스웬서 제이. 팔머 선교부장님의 감리하에, 제2보좌 이호남 형제, 그리고 차종환 지방부장 등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현재 집회소로 사용하고 있는 양병호 형제님 대에서 첫 침례식이 거행되었다. "아침 저녁 때일같이"를 개회찬송으로 부른 후, 서원 장로이 기도로서 시작된 침례식에서 이호남 형제님은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이어서 티없이 맑은 흰 침례복을 단정히 입은 7명의 형제와 3명의 자매들은, 그곳에 참석한 여러분의 축하를 받으며 차례로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았다.

한국 물문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광주의 이 첫번 침례



식에서 침례를 받게된 영광스러운 형제 자매들은, 전남대학교 사무 국장으로 계신 이 재수 형제님을 비롯하여 아들 되시는 이강국형제, 따님 되시는 이복숙자매, 또 점현기 형제, 양희일형제, 이규종형제 양병호 형제님의 어린아들, 양승철, 양영철형제, 그리고 부인 되시는 황선숙자매, 그리고 박병규 형제의 부인되시는 이영지자매였다. 이분들은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의해 다시 지상에 회복된 대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의 압수로 성신을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영예로운 회원으로 확인되었다.

물문 전시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역사와 회복된 교회의 교리 및 조각을 간단히 설명해 주는 물문전시장이 대한 적십자사 광주지사의 대감담에 마련되어 침례식이 끝난 후 6시부터 개장되었다. 이 전시장에는 한눈에 볼수 있는 사진과 그림, 책자등이 전시되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책자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여유있게 비치하였으며, 말일성도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구도자들은 직접 선교사들과 약속하여 편리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공부할수 있도록 하므로써, 많은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도왔다.

* 팔머 선교부장 특별강연 심황

물문 전시장을 참관한 광주 시민들은 이미 포스타로 광고된대로 팔머박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오후 7시 30분 부터 시작된 이 강연회는, 조선대학교의 박철웅 총

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광주 시민과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이 강연에서 팔머박사는,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가 쉽게 번성한 이유를 한국 역사를 더듬어 역설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사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인의 생활속에 잠재하여 있었으며 이것은 아울러 한국인의 천부적인 축복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종교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어떠한 종교를 가져야 할 것인지 망서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팔머박사님의 강연요지에서 앞으로 갈길을 분명히 제시 받았을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은 신앙생활의 결의를 다시한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고무적인 기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영 화 상 영

팔머박사님의 강연을 듣고난 청중들은 미리 준비된 영화 "행복의 추구"를 관람하였다. 뉴욕 세계 박람회장에 마련되었던 돌돈관을 소개하며 돌돈의 가르침과 이상과 생활을 보여 주는 이 영화는 인간이 지상에 존재함은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며 그 기쁨은 말일성도들이 지닌 녹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삶은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생활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얻어지는 보람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또한 이 영화는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영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의와 지상생활을 마친 후의 생활에 대한 흐뭇한 답변을 듣고 삶의 보람을 되찾은 듯하였다.

長老 任命

12월 4일, 일요일, 10시 30분. 그라스도
의 살과피를 기억하는 성찬을 들고, 간증회를 가진 광주지역
도입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뜻있는 도입을 가졌다.
전날 침례받은 형제 자매들의 강한 간증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느끼게 하였으며 특히 이재수 형제와 그
아들되시는 이 감국 형제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간증은 광주
지역도입이 의롭게 발전할 앞날을 예상케 해주었다.

간증회가 끝난 후, 그동안 광주 지역에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박병규 형제가 팔머 선교부장의 안수로 장토직에 성임되
었다.

이리하여 광주지역에는 선교사를 제외한 회원중에서 처
음으로 장토가 탄생되었고, 영적인 의식을 수행할 인도자가
한국 땅에 더 늘게 되었다.

이번 광주지역의 대 활동을 통하여 느낀바, 하나님은 분
명히 살아계셔서 의로운 자들을 부트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
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심을 다시 한번 실감케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양병호형제님의 영에 함께하시어, 당초 여관방에
서 토이던 성도들이 안정감을 갖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케 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뜻이 같게 하였고, 주님의 뜻
을 저바리지 않은 옛 회원인 박병규 형제와 이형제, 그리고
임형제를 불러 모으사 봉사케 하였으며, 호남의 영들을 주님
의 우리 안에 인도하도록 여러 선교사들을 멀리 광주에 보내
시어서 만민에게 공평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

끝으로 멀리 광주에서 음양으로 수고하시며 주님의 사업

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의롭고 선하고 성실한 말일성도를 통해 공주가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회 지도자와 선교사 및 공주의 회원, 그리고 구도자 여러분에게 감사말 드리는 바이다.

* * * *

일어서는城北

이 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도 어언 일년, 그간 성북지역은 크고 작은 여러개의 난관을 돌파 현재는 민경옥 형제님대에서 모임을 갖는다.

기자가 처음으로 민경옥 형제대를 찾은 것은 지난 12월 6일, 건축 기금문제도 특별 회의를 그곳에서 가졌을 때다. 민경옥 형제님이 누구라는 것은 몰랐어도 그분의 수고와 활동을 익히 들었던 터라 곧 기자는 오랜 또 하나의 성도를 만난 따듯함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수고하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단결된 신앙의 도수는 10여년전 처음으로 말일성도가 남의 집 교실을 빌어 예배를 볼 때의 감회를 불러 일으켰다. 이곳에 참석하는 회원이 평균 45명 그중 15명의 신권 소유자가 포함된다니 성북 지역은 건물만 갖게 된다면 하나 지부토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잊그제만해도

몇몇 사람들만이 모이던 곳이고 한 때는 곡엽 이 지역을 그 대토 존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로 그 성장이 미미했으나 절실한 기도와 신앙의 열이 결국 오늘의 도두를 가능하게 하고 말했다.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그 조건이 허가하는 범위안에서 그러나 섬기자는 열의가 뜨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성북이다. 나이 어린 성도로부터 노년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로 단결되어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을 가지신 자매님들이 때로는 행상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역 건축기금을 토는가 하면 상호부조회 역원을 동원하여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성북지역 회원들은 안으로만 단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외 선교활동이 활발함은 이미 현재의 출석인원이 45 명이라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성북구청장님을 비롯 성북경찰서장님도 성북지역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성북경찰서장님께서서는 성탄절을 맞아 성북지역 회원들에게 사과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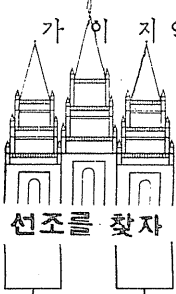
선교사들 또한 열성적이어서 이 지역 선교사들은 회원들과 일심일체가 되체, 지역발전과 회원들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 선교사 관리자인 넬슨 장로는 지역 성도 이상으로 지역발전 사업에 열을 올리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의로 일하고 있다.

주요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북지역의 총관리는 평의원 김종균 형제가 맡고 있으며 김동모 형제님의 뒷받침이 크게 힘이 된다.

집을 빌려 주신 민경욱 형제님께서서는 주일이면 있는 난

방시설을 전부 동원하며 내실까지도 회원들의 분반신토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고하시는 분을 낱낱이 이곳에 소개하지 못하는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가 이 지역에 풍성하기를 빈다.

* * * *



系譜委員會消息

선전 사업은 최고의 영광과 선조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며 계보사업을 통한 연구와 노력이 수반됩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유일한 이 땅의 시온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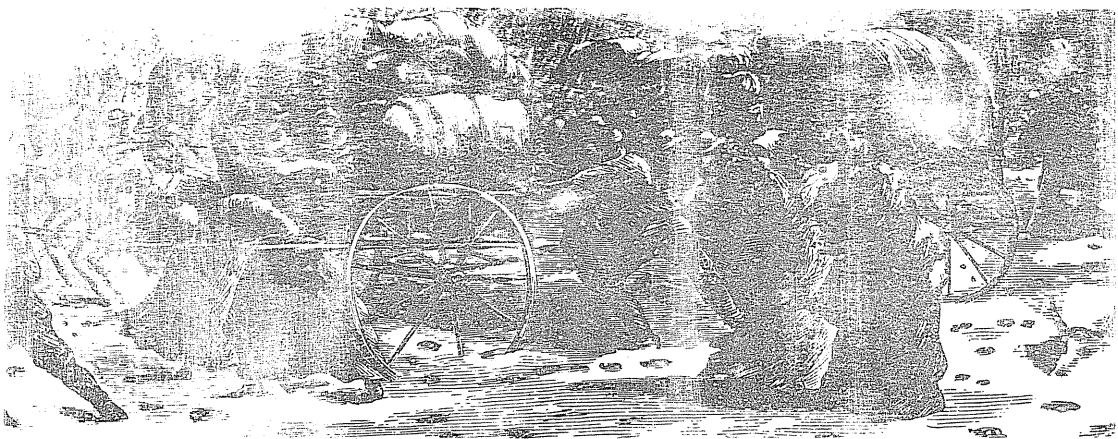
이 참된 교회는 신권으로 운영되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있고 회원이면 모두 신앙에 따라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의는 첫째, 칙령을 통한 자격 획득이요, 둘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생을 연결하는 선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보 사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의 구원의 복음은 진실합니다. 계보 사업의 목적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최고의 영광 획득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와 성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보 담당 평의원 박재암



성탄을 장식하는 하얀 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수 있을까? 그러나
역사의 어느 겨울을 우리는 눈속에 묻혀 떨면서 간증을 위하여 고난의
여행도 했더란다.



바다여! 물결이여! 네가 노란 달에도 내가 안식을 가질수 있는 것은
주가 나의 방패이심이다.

1966年度 몰몬家族

두분이 모두 몰몬인 가족

함 인철,	김 용자
함 인삼,	이 규인
이 영범,	조 현숙
이 충길,	문 숙자
김 종균,	최 도증
이 정근,	유 관옥
김 동길,	장 혜자

형제만 몰몬인 가족

최 상흡
서 현룡

자매만 몰몬인 가족

김 명미
이 순화
이 명진
함 혜자



이 해를 보내면서

이 순 애 자매

1966년, 가슴이 터지도록 즐거웠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외 딸로서 외머느리토 들어가서 첫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가 정 의 기쁨은 절정에 달했고, 또한 남편 손에 침례를 받았고, 안수를 받았고, 우리 애기 축복을 받았고, 이어서 남편은 학위를 받게 되었고 특히 지방부장으로로서 선택되었으니 이해는 내생애 최고의 해인가보다. 지구를 두손으로 꼭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어리석은 일. 12월도 증순에 곁어 들었으니 이해의 총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을 마음의 준비나 해야 겠나 보다.

항시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한해가 저물어 갈 때가 되면 후회와 부끄러움이 뒤범벅이 되어 자신을 무섭게 채찍질하는 단계를 이해에도 거쳐야 하는가 보다. 나의 부끄러움을 조용히 생각해 본다. 우선 딸로서 머느리토로서의 부끄러움이 앞선다. 어머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학생 시절에는 어머님께 효도하는 길을 공부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결코 어머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일기장의 페이지마다 적어놓았던 그 많은 서약을 실행했는가? 부끄럽게도 실행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못했다. 결혼하면 부모를 잇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았음인가? 그것은 아니다. 나는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중에 가장 증오심을 갖고 배척하는 것이 바로 결혼했다고 부모를 등한시 하는 점이기 때문에.

다음은 시어머님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시어머님 역시 분자 그대로 어머님 이시다. 우리나라의 고부간의 불화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왈가 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의 할점은 해방후 급격히 서구에서 들어온 부부 중심주의에 너무 빙해 버린 탓인지 시부모님은 귀찮은 존재라고 나인 짝어 버린다는 점이다. 물론 생활 환경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른 신.구 세대가 같이 적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린 사람이 어른을 사랑과 존경으로 모신다면 얻는바가 틀 것이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금년에는 실행을 못하고 말했다. 나의 시간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주시는 시어머님께 내년에는 꼭 보답해 드려야지.

그 다음은 남편에 대한 미안감이 밀려온다. 모두가 남편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해 돕고 있는데 반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고 도와줘야 하는 부인의 역할을 못한 나. 그로 하여금 가사에 조그마한 신경도 쓰지 않고 극히 만족스런 마음으로 그의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정돈 내지 처리해 나가지 못한 나, 그가 기분이 언짢아 할 때 따듯이 위로해 주지 못한 나, 이처럼 결점 투성이의 부인에게 불평 한마디도 없는 그에게 내년에는 꼭 만족하게 해 드려야지.

다음은 선생으로서의 부끄러움이다.

악화가 양희를 구축하는 염상은 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다. 의욕있는 정치가, 정열적인 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성실성을 들고 얼마안있으면 지금같이 시들고 가난한 삶, 고통스런 삶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기쁨지고 운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태만성, 자기의 실력배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아침과 기만으로 생활을 함상 시켜 불려고 노력하는 구역질 나는 우리들,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시기, 모략, 중상 등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잔학한 마음, 등등이 들끓고 있는 이 사회.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악을 제거 못하는 한, 근대화는 구호의 되풀이 뿐이리라. 아무리 교회 지도자가 훌륭한 말을 하고 정치가가 열변을 호해도 한번 이렇게 물든 사회는 개선하기가 어렵다. 개선하는 길은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길만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선생이란 참으로 무섭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이 귀중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알팍한 지식만을 주입시키고서 그들의 선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교단에 서기 위해 얼마만큼의 준비를 했는가? 모두가 부끄럽다.

딸로서, 며느리로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선생으로서 모두가 너무나 부족하고 따라서 자신의 초라함을 통감하게 된다. 나는 팔머 자매님의 조용하면서도 지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여유만만한 모습을 대하게 되면 자신의 무력함을 더 한층 느끼게 된다. 이해에도 든 발전없이 안일하게 넘어

各支部 消息

— 부산 동구지부 —

10월을 "운동의 달"로 정한 부산 동구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가지 다채로운 운동행사가 있었습니다.

* 제1회 지부장배 족탁 조직별 배구대회.

지부장단 및 주일학교, 선교사, 소년단, 상호향상회의 4개팀이 지난 10월 15일(토) 오후 3시 지부 운동장에서 행진곡의 연주 가운데 선수 입장식으로부터 막을 올렸다. 리그전으로 전개된 이 대회에서는 각 팀의 막상막하의 씨소계임으로 인하여 전등불까지 동원하면서 오후 7시에야 우승컵은 상호향상회 팀으로 돌아가고 선교사팀과 지부장 및 주일학교팀이 동유포써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형제 선수들이 두색함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한, 자매 선수들의 투지가 칭찬할만 했고 늦게까지 남아서 많은 응원을 해주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제1회 마라톤 경주 대회

10월 22일(토) 오후 4시 10분 정각에 출발신호와 함께, 13명의 주자들이 교회에서 부산 터널까지 왕복 8킬로미터 코스를 향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떠났다. 반환점에서 19분에 통과한 정균상 형제가 33분의 기록으로 제1착의 테일을 끊었으며 34분의 한석순 형제, 34분 30초의 이세연 형제의 아슬 아슬한 차이로 각각 결승점의 테일을 끊었다. 그리고 피터슨 장님은 10등으로 끝났고 워건스 장님은

9착으로 골인했으나 규정 토스를 통과하지 안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순위에 들 수가 없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칼슨장 토님과 슈미드 장토님은 자전거토써, 주자들의 앞과 뒤를 호위했으며 반환점에서 기록해 주신 많은 형제 자매님의 성원에 감사할 드리고 이에 대한 시상은 다음 날 주일학교 후에 김 용일 지부장께서 상장과 상품 수여식이 있었다.

* 제 1회 탁구, 배드민턴 대회

10월 8일에 거행 할 예정이던 이 대회는 우천으로 연기 되어 10월 29일(토) 오후 3시부터 지부 운동장에서 두 종목 동시에 시작되었다. 탁구에는 토나멘트로써 에이.조에서 올라온 박태욱 형제와 비.조에서 올라온 박명진형제의 대결로서 결승전을 장식하였는데 박태욱 형제가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박명진 형제를 물리쳐 65년도 한국 지방부 주최 탁구 단시 선수의 관록을 여지없이 나타내어서 형제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자매부에서는 배일문 삼 시모집에서 일등한 김정희 자매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국금옥 자매를 물리쳐 우승했다. 배드민턴에서는 형제부에서 결승전에 올라온, 박찬신형제와 안삼계 형제의 시합 중, 일몰로서 게임을 중단하고 자매부에서 올라온 국금옥 자매와 같이 세 사람 추첨한 결과 안삼계 형제가 우승을 차지했다.

* 제1회 부산동구지부 백일장

지방부 행사의 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부산 동구지부의 연례 행사로서 계획된 이번 백일장은 지난 10월 27일(목)삼호환 상회 시간에 가졌다. "홍시"와 "카렌다"라는 제목으로써 51명이 응모한 결과 이광홍 형제가 "홍시"를 가지고 영예의 장

원을 했고, 구도자이지만 글 속에서 좋은 신앙심을 엿보인, 안병욱 형제가 역시 "홍시"로서 차상을 차지했고, 박태욱 형제가 "홍시"의 수필 토씨 차하를 차지했다. 여기 심사 위원에는 김 용일 지부장님과 국문학을 전공한 박 묘자 자매, 그리고 삼향회 둔학반 교사인 정병애 자매가 각각 맡았다.

- 부산 지부 -

배 영천 지부장님의 결사적인 노력으로 숙원이었던 예배당 건립이 교회 본부에서 허락이 나 멀지 않아 말쑥한 새 예배당이 건립될 것을 생각한 지부 회원들은 벌써부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앞으로 건립할 예배당의 건축 프로그램을 특별한 건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중이다.

한 혜자 자매 결혼

지난 12월 10일 오후 2시 남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예식장에서는 부산 지부의 훌륭한 자매인 한 혜자 자매의 결혼 행진곡이 울려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자매를 교회 밖의 신랑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한 자매가 노력하여 남편을 반드시 교회에 인도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한 자매의 새 가정을 축하드립니다.

— 청운 지부 —

지부장단이 개편된 청운지부에서는 개편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향회 회장단이 그들의 열의를 최고로 발휘하여 회동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 위해 모든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 위해 모든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며 지난 12월 8일 상향회에서는 월계반과 장미 및 기수반 합동으로 고구마 파티를 하여 회원 상호간에 정말 복음 가운데 형제와 자매로서의 정의를 굳게 함으로써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 활동이 곧 그들의 모든 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 개편된 상호 부조회는 새로운 회장인 장인덕 자매가 모든 자매들과 더불어 신구 회장 송별 환영파티를 갖고 앞으로 회원들의 활동을 고무 시켰다.

* * * *

33 페이지, 이해를 보내면서의 계속)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새해에는 이와 같은 후회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다짐해 본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찬란한 새해를 맞으면서 나의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기도 드린다.

聖徒의 벗이 選定한

1966年度 10大 뉴스

동부지부 헌당
부산지부 건축허가
교리와 성약 번역 완료
지방부장단 개편
루스 형제내의 임무완료 귀국
한국 몰몬 박사 탄생
선교부장 홍콩 쎬미나 참석
광주지역 개척
KBS. TV에 출연
몰몬 선교사 농구팀 원정

役員 소개

선교부장	스펜서 개이. 팔터	지방부장	차	종 환
재일보좌	이. 에스. 씨순	재일보좌	한	인 상
재이보좌	이 호 남	재이보좌	송	태 설
서 기	에프. 엠. 리브	서 기	지	영 달

평 의 회

대 신 권 담당	김	종	균
소 신 권 담당	구	중	식
건축 담당	금	박	울
우정 담당	도	길	희
시간 선교사	김	복	정
계보 담당	박	재	안
주일학교 담당	정	대	환
삼향회 담당	김	삼	호

대세렛 들렬 고문	알. 하킨스
야튼신 권 고문	디. 벅틀러

侵禮者 名單

- 삼척지부 — 박 은주(여)
- 성북지역 — 전 인홍(남) 전 인삼(남) 이 재영(남)
 전 영순(남) 양 인승(남)
- 석부지부 — 권 복순(여)
- 신촌지역 — 송 승호(여) 박 청익(남) 전 태호(남)
 전 성호(남)
- 부산동구 — 신 부숙(여) 김 정희(여) 최 복필(여)
 김 효경(여)
- 청운지부 — 김 영춘(남) 안 두용(남) 박 막동(여)
 김 문애(여) 강 기원(여) 김 옥권(남)
- 대구지부 — 홍 태교(여) 홍 태익(남) 전 명선(여)
 안 명순(여) 안 승택(남)

* * * *

編輯後記

딱바로 누우침의 시간을 가져볼 겨를도 없이 1966년이 다
 갔습니다.

"섬도의 벗"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았으나 "섬
 도의 벗"을 갖고도 의로우셨을 형제자매 여러분! 섬도의 벗
 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전할길이 없군요. 1967년엔 새로운 간
 부들과 함께 보다 좋은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새해에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편집실)